

『율곡전서』 습유(拾遺) 소재 「경포대부」에 형상화된 경포대의 장소성

Placeness depicted in *Gyeongpodae-bu*, *YulgokJeonseo*

김지인*

국문요약 경포대(鏡浦臺)는 강원도 강릉(江陵)의 대표적인 명승지로, 경포대에는 오랜 시간에 걸쳐 여러 이야기와 시문(詩文)이 축적되었다. 이런 이야기와 시문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신선이 노닐었던 땅’이란 이미지다. 고려 이래 조선 말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심지어 현재까지도 경포대에 대한 소개에서는 영광 내지 사선량이 노닐었다는 이야기가 으레 언급된다. 이러한 관습상, 율곡(栗谷) 이이(李珥, 1536~1584)의 작으로 전해진 「경포대부(鏡浦臺賦)」는 특이 사례이다. 「경포대부」에서 경포대에서 노니는 화자는 철저히 성리학적 가치에 충실한 유자로서 매 계절의 풍광에 감회를 느끼며, 신선과는 무관한 선배 유학자들의 발자취가 어린 장소로 경포대를 묘사한다. 곧, 경포대는 유자가 성리학적 정서 함양을 실천하는 장소로 인식되었다. 후대의 인물에게 해당 작품이 제시한 ‘유자의 수양처인 경포대’란 이미지는 승계되지 않았다. 경포대를 제재로 하는 시문 전통에서 특이한 장소 인식을 보여주는 「경포대부」를 살펴본다.

핵심어 경포대(鏡浦臺), 「경포대부(鏡浦臺賦)」, 장소, 장소성, 이야기, 성리학적 산수유람, 신선, 배부(俳賦)

- 차례**
1. 서론
 2. 「경포대부」의 형식적 특성과 구조
 3. 「경포대부」의 주제와 그 표현
 4. 「경포대부」 속 경포대 지역 이미지와 그 독특성
 5. 결론

팔경 중 하나로 인식되었다. 이에, 경포대를 제재나 배경으로 삼은 고려 및 조선시대의 한문학 작품이 다수 현전하여, 한국고전번역원 제공 한국고전종합DB에서 ‘경포대’가 제목에 명시된 작품만도 109편이 있다. 시(詩)가 97편으로 대부분이며, 기(記)가 8편, 상량문(上樑文)이 3편인데, 부(賦)는 유일하게 본 논의의 대상인 「경포대부(鏡浦臺賦)」 1편만이 보인다.¹ 「경포대부」는 변려문(駢儷文)과 부의 특징을 동시에 보여주는 변부(駢賦) 내지 배부(俳賦)로, 전고를 다용하여 압축적으로 화려하게 이미지를 전달하는 변려 글쓰기의 특징과 대상을 직서하고 작자의 의견을 전개하는 부의 성격이 결합한 작품이다.

이러한 경포대를 제재로 삼은 시문을 분석한 선행 연

1. 서론

강원도 강릉의 경포대는 주지하듯 경포호와 바다를 동시에 면하는 특수한 위치에 자리한 언덕의 지명이다. 경포대는 고려시대 이래 관동 지역의 명승지로 손꼽혀 관동

¹ 중복되는 검색 결과는 제외하였다. 이외에, 경포대를 제재로 한 시문 작품에 서발(序跋)을 붙이거나 비평을 가한 경우가 2건이 있다.

구 중, 특히 김풍기²는 고려시대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 통시적인 분석을 통해 경포대를 구성하는 핵심 이미지가 ‘신선이 노닐던 곳’임을 밝혔다. 그는 가장 오래된 현전 경포대 제영으로 고려시대 김극기(金克己)의 시를 제시하고, 해당작과 후대의 안축(安軸, 1287~1348)의 기문에서 일관되게 영랑(永郎) 내지 사선랑(四仙郎)을 신선으로, 경포대를 신선이 노닐던 곳으로 형상화함을 보였다. 또한, 경포대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야기인 조선 초 조운홀(趙云訖, 1332~1404)과 박신(朴信, 1362~1444), 그리고 기생 홍장(紅粧)에 얽힌 이야기 역시 신선 이미지에서 파생된 것임을 지적하여, ‘신선이 노닐던 장소’라는 이미지가 조선시대 초까지 공고하게 유지됨을 보였다. 이후 조선시대 한문학 작품에서, 경포대라는 구체적인 장소가 점차 보편적이고 유형화된 이미지로 형상화됨을 추적하여 밝혀냈다.

경포대를 신선이 노닐던 곳으로 이미지화하는 몇 세기에 걸친 유구한 문학적 전통을 고려할 때, 율곡(栗谷) 이이(李珥, 1536~1584)의 작으로 받아들여졌던 「경포대부」는 특이한 사례이다. 「경포대부」는 위 안축의 기문과 조운홀과 홍장의 이야기를 경포대를 구성하는 역사로 회고하지만 이들 이야기의 핵심 이미지인 영랑 등의 신선은 작품 속에서 일절 다루지 않았다.

지금까지 「경포대부」를 다룬 많지 않은 논의는 주로 「경포대부」의 작자 문제에 주목했다. 이경동의 논의³는 『율곡전서(栗谷全書)』의 주 편집자 이재(李穡, 1680~1746)와 이재 사후 ‘습유(拾遺)’를 보충하여 『율곡전서』를 간행한 홍계희(洪啓禧, 1703~1771)의 편집 태도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로 홍계희가 「경포대부」를 별다른 검증 없이 『율곡전서』 습유(拾遺)에 수록한 사실을 지적했다. 「경포대부」를 중심에 놓은 현재 유일한 선행 연구인

유정은의 논의⁴는 해당 작품이 10세 무렵 이이의 작품이라기엔 정서와 기교 상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 근거하여 신사임당(申師任堂)이 해당 작품의 공동작자 이상의 역할을 하였으리라 추정하고, 해당 작품에서 신사임당의 사상을 읽어내고자 했다. 이상의 선행 논의에서 통해 작자가 이이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이 강력하게 제기되었다.

다만 해당 작품은 처음 발견된 당시부터 이이의 작품으로 받아들여졌다. 「경포대부」는 『율곡전서』⁵ 습유 편에 ‘열 살 때의 작품[十歲作]’이라는 주와 함께 실려있는데, 이 작품은 영조 19년(1743)에 당시 강릉부사 조하망(曹夏望, 1682~1747)이 경포대를 보수하고 상량문을 짓고서 경포대에 관한 이이의 시문을 널리 구하자, 이이 외가의 후손 집에서 제보하여 ‘발견’한 작품이다.⁶ 이경동이 이미 지적하였듯, 해당작이 이이의 작이라고 확정할 근거는 발견 장소와 원자료에 적혀있었다는 이이의 작품이라는 기록 정도로 매우 불충분하다. 그럼에도 이 작품은 발견자 조하망, 조하망의 편지를 통해 작품을 열람하고 교정 의견을 나눈 김재로(金在魯, 1682~1759), 그리고 『율곡전서』 습유에 수록한 홍계희에게 즉시 이이의 작품으로 받아들여졌다. 이후, 후대에 경포대를 제재로 한 시문 중 이이의 작으로서 위상을 획득했다.⁷

조하망, 김재로, 홍계희는 「경포대부」에서 어떤 가치를 발견했기에 이이의 작으로 확신했던 것일까. 조하망이

4 유정은, 「율곡의 「경포대부」에 숨겨진 신사임당의 사상 연구」, 『율곡학연구』 52, 율곡연구원, 2023, 35~70쪽.

5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이하 한국고전번역원) 제공 『한국문집총간』 44~45권.

6 조하망이 발견하고 조하망 및 김재로가 이이의 글로 확인하여 홍계희에게 전달하여 『율곡전서』에 작품을 실고 연보에도 보충해 넣은 상황은 조하망의 『서주집(西州集)』 권7의 「석담선생 「경포대서」 후발(石潭先生 「鏡浦臺序」後跋)」 및 김재로의 『청사산록(淸沙散錄)』 책4, 「율곡연보추보 「경포대서문」 발(栗谷年譜追補 「鏡浦臺序文」跋)」에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다(『서주집』, 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총간』 속 64; 『청사산록』, 규장각 古3428-490).

7 대표적으로 이유원(李裕元, 1814~1888)의 경우 『임하필기(林下筆記)』 권37, 「봉래비서(蓬萊秘書)」 경포대 항목에서 경포대를 제재로 한 작품을 선택하며 첫머리에 「경포대부」를 이이의 작으로 실었다(규장각 奎4916).

2 김풍기, 「명승 구성의 방식과 유형화의 길: 경포대 소재 시문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104, 한국언어문화회, 2018, 117~145쪽.

3 이경동, 「조선후기 율곡 이이 문집 편찬의 추이와 의의」, 『유학연구』 52, 충남대 유학연구소, 2020, 1~37쪽, 특히 27~30쪽.

김재로에게 보낸 두 편의 편지⁸에 드러난, 조하망이 해당 작을 이이의 작품다운 가치를 지닌다고 본 면모는 두 가지다. 하나는 ‘형식상의 독특함’이다. 조하망은 변려문으로 글을 쓰면서 동시에 압운하여 변부의 형식을 갖춘 것이 드문 성취라고 보았다.⁹ 나머지 하나는 내용상의 비범함으로, 조하망은 열 살 어린 시절의 이이가 벌써 올바른 출처에 대해 설파한 것은 반드시 연보(年譜)에 보유하는 자리를 넣어 특기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하였다.¹⁰

조하망이 「경포대부」의 주제를 이이의 출처관에 대한 자술로 해석한 것은, 「경포대부」의 후반부에 관직에 나아가 사직을 위해 일하는 것과 산천에 머물러 성정을 함양하는 것을 대조하는 서술이 드러남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포대부」 전체 72개 연에서 출처에 대한 발언이 보이는 것은 34연 이후 후반부의 서술이며, 정확히는 산천에서 유람하는 것의 타당성을 설파하는 과정에서 출처에 대한 태도가 드러난 것이다. 전반부에 해당하는 1~33연에서는 경포대의 지리와 풍광, 특히 사계절의 모습과 계절별 유람자의 행동과 심회를 묘사함으로써 경포대의 사계절 풍광이 유자의 성정 함양에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제시했다. 곧, 해당작을 관통하는 주제는 ‘올바른 출처관의 설파’가 아니라 ‘경포대에 유람하는 일의 타당성과 의의’다.

「경포대부」는 변부라는 형식과 그리고 그 주제, 경포대

를 형상화하는 태도에 있어 개성적인 면모를 보인다. 작자 귀속 문제와 별개로, 작품 자체에 대한 분석과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경포대부」의 내부를 자세히 살피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이 작품이 경포대라는 장소에 부여하는 의미와 경포대에서 유람하는 일에서 찾는 의미를 분석하여, 이를 통해 해당 작품 속에 드러난 경포대의 장소성을 탐색한다.

2. 「경포대부」의 형식적 특성과 구조

「경포대부」는 조하망이 주목했듯 ‘부’로서 압운(押韻)을 하면서 동시에 대우(對偶)를 핵심으로 삼는 변려글쓰기를 사용한 변려문이다. 아래에 1~9연을 예로 들어 살핀다.

1연 하나의 기가 흐르고 변화하니, 이에 맺히고 또 녹았네.
一氣流化; 爰結爰融. (融, 평성 東운)

—●—●; —●—○

2연 감추어둔 신비를 바다 밖 우리나라에 펼쳐, 맑고 깊음을 관동(關東)에 모았네.

開壑祕於海外; 鍾清淑於山東. (東, 평성 東운)

——●於—●; ——●於—○

3연 바다에서 맑은 물갈래가 갈라져 한 개 차가운 거울이 맑고, 봉래산에서 흰 다리를 잃으니¹¹ 몇 점의 푸른 봉우리가 늘어섰네.

分清派於天池, 湛一面之寒鏡; 失左股於蓬島, 列數點之青峯.

(峯, 평성 冬운)

——●於—○, ——●之—●; ——●於—●, ——●之—○

4연 한 누각이 호수에 임했으니, 단정히 곧게 서 있는 듯하네.¹²

11 흰 다리를 잃으니: 소동파의 「백수산불적암(白水山佛跡巖)」시에, “어떤 사람이 봉래산을 지키는고 / 밤중에 왼편 다리를 잃어버렸네[何人守蓬萊夜半失左股]”라 했다.

12 단정히~듯하네: 『시경(詩經)』 「사간(斯干)」에 “사람이 몸을 곧게 세워 공

8 조하망, 위의 책, 「김 영의정 재로께 드림[上金領相 在魯]」 2편

9 “고인이 염(簾)을 맞추고 압운(韻)하는 데에 있어 사용법에 제한이 있었으니, 변려문에는 염이 있고 사(辭)에는 운이 있는 것으로, 둘 다 하는 경우는 전혀 없었고 따로 사용할 뿐이었습니다. (...) 지금 이 서문은 이미 운을 맞추고 또 염을 하였으니, 실로 이는 옛적의 노숙한 거장들도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古人於簾韻, 用之有制, 儷則有簾, 而辭則有韻, 固未嘗兼之, 只是各用. (...) 今此序文, 既韻而又簾, 實是前古耆匠宿師之所未到]” (조하망, 위의 글. 번역은 필자. 이하 같다.)

10 “마지막 편의 뒤에 네다섯 판을 덧붙여, 서두에는 「연보보유(年譜補遺)」라 표하고, 두 번째 칸에는 ‘모년(某年) 모갑자(某甲子)에 선생의 나이 10세, 강릉에 계셨다. 「경포대서」를 지으시다. 서에 이르길, 운운’ 이렇게 보충하여 고치면 사리에 합당할 듯합니다. 10세 때의 학문으로 이미 출처(出處)와 행장(行莊)의 뜻을 강론하신 일은 정말이지 사라져 버리게 두어서는 안됩니다.[終編之下, 添以四五板, 首間表以‘年譜補遺’, 二間記‘某紀年某甲子, 先生年十歲, 在江陵, 草‘鏡浦臺序’. 其序曰云云, 若是修補則似合事宜. 而但十歲所學, 已講出處行莊之意者, 誠不可泯]” (조하망, 위의 글.)

有閣臨湖; 如跂斯翼. (翼, 입성 職운)

—●—○; —●—●

5연 비단 창으로 시원한 실바람 불어오고, 금빛 푸른빛 단청
에는 아침 해가 빛나네.

引微涼於綺疏; 耀朝日於金碧. (碧, 입성 陌운)

—○於—○; —●於—●

6연 아래로는 까마득한 땅에 임해 성곽을 보고서야 겨우 분
별하겠고, 위로는 층층 하늘까지 솟아 있어 별을 어루만
지고 딸 수 있네.

下臨無地, 見城郭而纔分; 上出重霄, 拊星辰而可摘

(摘, 입성 錫운)

—○—●, —●而—○; —●—○, —○而—●

7연 속세의 바깥에 위치하고, 호리병 속 별세계에 처해있는데,
境是方外; 地入壺中. (中, 평성 東운)

—●—●; —●—○

8연 물결은 학 등에 내리는 달빛을 머금고, 난간은 익새 머
리에 이는 바람을 받아들이네.

波含鶴背之月; 軒納鷁頭之風. (風, 평성 東운)

—○—●之●; —●—○之○

9연 길 가는 이 다리를 건너니 긴 무지개가 물에 누운 것이
보이고, 신선 궁궐에 구름이 비끼니 신기루가 허공에 뜬
것 같네.

行人渡橋, 見長虹之臥水; 仙闕橫雲, 比海蜃之浮空.¹³

(空, 평성 東운)

—○—○, —○之—●; —●—○, —●之—○

매 연을 번역문, 원문, 평측 구조 표시의 순서로 제시했
다. 원문의 끝에는 각 연의 끝 글자가 속하는 운(韻)을 밝

경함과 같으며, 화살이 곧게 날아감과 같으며, 새가 놀라 낮빛을 번함과
같으며, 뿔이 날아가는 것과 같으니, 군자가 올라가서 정사를 다스릴 곳이
로다. [如跂斯翼, 如矢斯棘, 如鳥斯革, 如翬斯飛, 君子攸躋]"라고 하였다.

13 전(傳) 이이(李珣), 「경포대부(鏡浦臺賦)」, 『율곡전서(栗谷全書)』 습유
권1. 번역은 김동주의 것(『임하필기』 8, 한국고전번역원, 2000)과 이진
영의 것(『국역 율곡전서』 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197~201쪽)을
참조하여 필자가 약간 수정하였다. 이하 같다.

혔다.¹⁴ 원문 아래 표기한 것은 매 구마다 변려 율격의 적
용 대상이 되는 위치에 놓인 글자들의 평측이다.¹⁵ 평성은
○, 측성은 ●로 표기했다.

먼저, 대우구끼리는 문장 구조가 같으면서 문장을 이루
는 단어가 의미상 대비를 이루었다. 구체적으로 6연을 살
피면, 1구의 ‘아래’와 3구의 ‘위’, 또한 1구의 ‘까마득한 땅’
과 3구의 ‘층층 하늘’, 그리고 1구의 ‘임하다’와 ‘솟다’가 각
각 대를 이룬다. 더하여, 2구의 ‘성곽’·‘분별하다’와 4구의
‘별’·‘따다’가 서로 의미상 대비를 이루면서, 경포대의 누
정이 높이 솟아 땅보다는 하늘의 별에 가깝다고 표현했다.

다만 변려문의 율격은 아주 정교하게 구사되지는 않
고 있으며, 심지어 변려 율격의 가장 기본적인 규칙인 매
구의 끝 글자가 ‘평-측-측-평’ 내지 ‘측-평-평-측’의 패
턴을 반복해야 함이 지켜지지 않는 곳이 있다. 이는 한 연
의 끝 글자에서 압운하는 규칙과 변려문 율격이 충돌하기
때문에 피치 못할 현상이다. 이 작품은 ‘부’이므로, 두 규
칙이 충돌할 경우는 압운을 우선한 것으로 생각된다. 예
를 들어, 1·2연의 각 구의 끝 글자에 변려 율격을 적용하
면 각 연의 끝 글자가 서로 평측이 달라져야 하는데, 이 경
우에는 압운하기가 곤란해진다. 이 작품의 1·2연은 둘 다
평성으로 끝나고 같은 東운으로 압운하는데, 같은 현상을
4·5연이 모두 측성으로 끝난 것과 7·8연 마지막 글자가
모두 평성인 것에서 볼 수 있다.

압운의 현황을 살펴보면, 3개 연마다 운이 바뀌었다.
1~3연은 서로 통운(通韻) 관계인 평성(平聲) 東·冬운
에 속하는 글자로 일관되게 압운하고, 4~6연은 서로 통
운 관계인 입성(入聲) 職·陌·錫운으로, 그리고 7~9연

14 운목(韻目)과 통운(通韻)에 대해서는 이채문 편역, 이장우 교열, 정범진
감수, 『국역 어전시운(國譯 御定詩韻)』(명문당, 2022)에 근거했다. 『어정
시운』은 정조 20년(1976)에 간행된 『규장전운(奎章全韻)』을 증보, 개간
하여 현종 12년(1846)에 간행된 운서(韻書)이다.

15 변려 율격 적용 대상이 되는 위치, 곧 절주점(節奏點) 판별에 대한 논의는
김지인, 「조선후기, 변려문 율격 논의와 실천에 대한 연구: 율격 규칙의 탐
색을 위하여」, 『열상고전연구』 82, 열상고전연구회, 2024, 281~338쪽,
특히 298~317쪽의 논의를 참조.

은 다시 평성 東운으로 일정하게 압운했다. 한 연을 구성하는 나머지 구의 끝 글자가 속하는 운목에는 경향성이 없어, 한 연의 내부에서는 압운하지 않고 한 연의 끝 글자만 압운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4~6연의 “湖”·“疏”·“地”·“分”·“霄”에서는 뚜렷한 규칙이나 패턴이 드러나지 않는다. 곧, 압운의 단위는 매 연이며, 환운(換韻)의 단위는 3개 연이 모인 한 문단이다. 3개 연이 모여서 구성한 각 문단은 모두 짧은 연(2개 구로 구성) 2개와 긴 연(4개 이상 구로 구성) 1개씩으로 구성되어 있다.

압운과 대우를 동시에 구사하며 이를 위해 변려문의 율격은 다소 타협하고, 3개 연을 기준으로 환운하여 ‘짧은 연-짧은 연-긴 연’ 형식으로 매 문단을 구성하는 위와 같은 현상은 비단 예로 든 1~9연뿐 아니라 「경포대부」의 나머지 부분에도 일관된다.

「경포대부」는 일정 단위로 일관되게 압운하며 제재로 삼은 ‘경포대’에 대해 서술을 펼친다는 점에서는 부 문체로서의 성격과 형식을 보인다. 동시에, 소리 및 의미상 대우를 이루는 짝수 구로 구성된 연을 기본 서술 단위로 전개하는 것은 전형적인 변려 글쓰기다.¹⁶ 이는 부(賦)의 여러 하위 갈래 중 대우를 이를 것을 중시하는 배부(俳賦), 곧 변부로 분류되는 특징이다.¹⁷

변부로서 「경포대부」는 부 문체에 맞게 대상을 묘사하고 서술하며 자신의 의론을 설파하는 동시에 운문인 부로서의 압운 기법과 변려글쓰기로서의 율격적, 의미적 대우 기법이 모두 드러난다. 이러한 변부로서의 형식적 특성은 조선시대에 조하망에 의해서는 주목받은 바 있으나, 현대에는 이를 고려하여 「경포대부」를 다룬 논의는 아직 없다.

그러나 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 형식에 대한 이해는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변려문의 구성단위인 연을 최소 단위로, 그리고 일관된 압운과 환운하는 위치를 기준으로 이 글의 전체 구조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3개 연으로 이루어진 문단별로 경포대부 전체의 구성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01문단: 경포대 위치 소개	(평 東·冬)
02문단: 경포대 누정의 장관	(입 職·陌·錫) ¹⁸
03문단: 누정과 그 주위의 풍경	(평 東)
04문단: 경포대에서 바라보는 봄 풍광	(평 庚) ¹⁹
05문단: 경포대에서 바라보는 봄 풍광과 유람자의 심회	(평 陽·靑·庚) ²⁰
06문단: 경포대에서 바라보는 여름 풍광	(입 物, 거 遇) ²¹
07문단: 경포대에서 바라보는 여름 풍광과 유람자의 심회	(거 遇, 입 物)
08문단: 경포대에서 바라보는 가을 풍광	(평 陽, 평 庚)
09문단: 경포대에서 바라보는 가을 풍광과 유람자의 심회	(평 庚·微·支) ²²
10문단: 경포대에서 바라보는 겨울 풍광	(거 漾, 상 養, 입 屑)
11문단: 경포대에서 바라보는 겨울 풍광과 유람자의 심회	(입 藥, 거 漾·養)
12문단: ‘객’의 유람 이력	(평 微)
13문단: ‘객’의 경포대 누정 유람과 심회	(입 습)
14문단: ‘객’의 경포대 주위 유람과 심회	(평 先)
15문단: ‘객’의 회고적 탄식	(평 陽)
16문단: ‘객’의 은거 결심	(거 霽)

16 박우훈은 운문과 산문 그리고 변려문의 관계를 고찰하며 변려체란 일종의 글쓰기 방식이기에 운문이나 산문에 모두 적용 가능하다는 점을 보이며 운문에 적용한 변려체 글쓰기의 예시로 변부를 든 바 있다. 박우훈, 『駢儷文과 韻·散文의 關係』, 『중국산문연구집간』 2, 중국산문학회, 2012, 33~49쪽, 특히 43~54쪽.

17 중국의 현대 연구자 진필상(陳必祥)은 배부, 혹은 변부가 대우구의 유려한 구사에 치중하여 ‘실상 압운한 변려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진필상, 심경호 역, 『한문문체론』, 이화문화사, 2001, 352쪽.

18 서로 통운한다.

19 4문단 세 번째 연의 마지막 글자는 “翔”으로 평성 陽운에 해당하며, 庚과 협운 가능하다.

20 5문단 각 연의 끝 글자는 “茫”, “汀”, “情”으로 각각 陽, 靑, 庚운에 속하여, 세 운목은 통운 내지 협운 가능하다.

21 6문단 세 번째 연의 마지막 글자는 “句”로, 글귀란 뜻으로 쓰일 때는 거성 遇운이다.

22 서로 통운한다.

17문단: '결의 어떤 이'의 충고(1): 현세의 덧없음

(평 灰)

18문단: '결의 어떤 이'의 충고(2): 불후의 명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입 陌, 藥)²³

19문단: '어떤 객'의 대답(1): 명성은 억지로 얻을 수 없다

(평 支)

20문단: '객'의 대답(2): 득실은 구분하기 어렵다

(입 質, 沃)

21문단: '객'의 대답(3): 내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평 微)

22문단: '객'의 대답(4): 산천유람은 성정 함양을 위한 것

(거 未)²⁴

23문단: '객'의 대답(5): 세상과 왕에의 충심을 간직했다

(평 眞)

24문단: '객'의 대답(6): 명승지 유람의 타당성(입 沃, 屋, 國)²⁵

위에서 볼 수 있듯, 압운은 아주 엄밀하게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한 문단 내에서 통운을 포함하여 운자를 유지한 것이 16개 문단, 그렇지 않은 것이 8개 문단, 이 중 운목은 다르더라도 압운처에 놓인 글자의 조선식 한자음이 매우 유사한 경우가 1개 문단(18문단), 그리고 의미상 연속되는 두 개의 문단에서 두, 세 운자를 사용한 사례가 6, 7문단과 10, 11문단이다. 곧, 전체 편에서 철저하게 압운하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의미 단락 내부에서 운자(韻字)의 배치에 신경을 썼음을 알 수 있다.

「경포대부」의 구조에 대해 위에서 대략적으로 살핀 이해를 바탕으로, 다음 절에서는 작품의 주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한다.

3. 「경포대부」의 주제와 그 표현

앞서 정리한 전체 24개 문단의 개괄에서, 이 작품이 경포대와 이곳에서의 유람을 제재로 삼아 묘사하는 11문단까지의 전반부와 주인공인 '객'과 '결의 어떤 이'의 문답 형식으로 유람의 의의를 직접 설파한 12문단 이후 24문단까지의 후반부로 크게 나뉘어 볼 수 있다. 아래에서 나누어 살펴본다.

「경포대부」의 전반부는 다시 경포대와 그 주위를 전반적으로 묘사한 1~3문단(1~9연)과 경포대의 사계절을 묘사하는 4~11문단(10~33연)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주목을 요하는 부분은 계절별로 2개 문단(6개 연)에 걸쳐 해당 계절의 경포대 주위의 풍광을 묘사하고, 경포대에 유람하는 인물에게 해당 풍광이 불러일으키는 심회를 묘사한 4~11문단이다.

계절별 첫 문단은 각 계절의 풍광과 분위기를 전달한다. 봄에는 풍광이 아름다워 난만한 분위기²⁶를, 여름에는 맹렬한 더위에 힘겨운 분위기²⁷를, 가을에는 소슬하면서 한적한 분위기²⁸를, 겨울에는 매서운 추위가 몰아치는 분위기²⁹를 묘사했다. 이어, 계절별 두 번째 문단에서는 조금

26 “봄에는 동군(東君)이 행차를 머물러, 화창한 기운이 유행하니 / 동쪽 서쪽으로 화초가 앞다퉈 수려하고, 위와 아래에 물과 하늘이 똑같이 맑네 / 버드나무 선 물가에 금빛 실가지 늘어졌는데 안개에 꾀꼬리의 휘장 잠기고, 도원(桃源)은 봄빛인데 이슬이 나비의 날개를 적시네. [其春也, 東君弭節; 灝氣流行. 東西兮花卉競秀; 上下兮水天同清. 柳岸金絲, 煙鎖流鶯之幕; 桃源花色, 露濕蝴蝶之翔]”

27 “여름에는 축융(祝融)이 말아 다스려, 만물을 기르네 / 초목들 퍼지고 꽃핀을 안분하고, 쇠도 돌도 녹아내리는 무더위를 극도로 하네 / 이글이글 불기운 해가 조맹(趙孟)의 위엄에 견줄 만하고, 첩첩 기이한 봉우리 구름이 도연명(陶淵明)의 시구(詩句)에 들어갈 만하네. [其夏也, 祝融司權; 長養萬物. 分草木之敷榮; 極流燄之煩熱. 炎炎火氣, 日比趙孟之嚴; 疊疊奇峯, 雲入淵明之句]”

28 “가을에는 금신(金神)이 부절(符節)을 잡아, 대지가 쓸쓸해지니, / 기러기 행렬이 성긴 전자(篆字)를 늘어놓고, 맑은 서리는 단풍을 적시네 / 붉은 여귀 자란 기슭에서는 해오라기가 들락날락 물고기를 노리고, 흰 마름 뜬 물가에서는 갈매기가 오락가락 낚싯배에 놀라네. [其秋也, 金神按節; 大地淒涼. 列疏篆以征雁; 染紅葉以清霜. 紅蓼岸邊, 鷺窺游魚之出沒; 白蘋洲畔, 鷗驚釣舟之往來]”

29 “겨울에는 기운이 막히고 음기(陰氣)가 짙 차서, 안개 속 물결이 얼어붙네 / 시든 못 풀들은 다 떨어지고, 외로운 소나무는 우뚝 서기가 여러 길이니 / 서

23 각 세 연의 끝 글자는 순서대로 “澤”·“帛”·“樂”으로, “澤”·“帛”은 陌운, “樂”은 藥운으로 운목이 다르며 두 운목은 서로 통운하지 않는다. 다만 조선식 한자음의 종성은 유사하며 셋 다 입성이다.

24 22문단 첫 연의 끝 글자는 “氣”로, 본래 眞운인데 未운에 통운 가능하다.

25 沃운과 屋운은 통운한다.

더 구체적으로 경포대의 풍광과 유람자의 심회를 묘사한다. 각 계절의 두 번째 문단, 곧 전체 작품의 5·7·9·11문단을 아래에서 살핀다.

5문단 떠도는 아지랑이 자욱하고, 먼 산봉우리 아득한데,
향기로운 비는 어부 집에 뿌리고, 비단 물결이 모래
톱에 일렁이네.

이에,
거문고 타고 옷을 느슨히 하며 기수에서 목욕하겠다
던 증점(曾點)의 즐거움을 마음에 품고, 바람 맞으며
술잔을 쥐니 세상을 근심한 희문(希文, 범중엄范仲淹)
의 심정이 가득해지네.³⁰

7문단 장맛비 막 개자, 못 시내가 앞다투어 흐르는데,
산에는 모락모락 안개가 일고, 물은 도도하여 파도
가드무네.

이에,
난대(蘭臺)에서 부(賦) 읊으니 초(楚)나라 양왕(襄王)의
바람이 상쾌하고³¹, 전각 모퉁이에 서늘함이 생기니
당(唐)나라 문종(文宗)의 여름날이 사랑스럽네.^{32 33}

릿바람 땅을 뒤흔들며 만 필 말의 창갈 소리를 내고. 눈송이는 허공에 나부
껴 천근 무게 옥가루를 흩뿌리네. [其冬也. 氣閉窮陰; 凍鎖雲浪, 凋百草其已
零; 秀孤松兮幾丈, 霜風振地, 鳴萬馬之刀鎗; 雪花飄空, 散千重之玉屑]

30 “浮嵐藹藹; 遠岫茫茫. 灑香雨於漁店; 翻錦浪於沙汀. 於是, 鼓瑟解衣, 抱曾
點浴沂之樂; 臨風把酒, 藹希文憂世之情”

31 난대에서…상쾌하고: 초(楚)나라 송옥(宋玉)의 「풍부(風賦)」를 의식한 표
현이다. 초나라 양왕이 난대의 궁전에서 노닐다가 불어오는 바람에 옷깃
을 헤치면서 “상쾌하구나, 이 바람이여 / 과인이 못 백성들과 이 바람을 더
불어 소유한 것이겠지[快哉此風, 寡人所與庶人共者邪.]”라고 말하자, 송
옥이 높은 궁전에 부는 시원한 사람과 누추한 백성들 거처에 부는 기본 나
쁜 바람은 같을 수가 없다고 은근히 양왕을 풍자한 것이 「풍부」에 보인다.

32 전각…사랑스럽네: 당(唐)나라 때 문종(文宗)과 유공권(柳公權)이 함께
지은 「하일연구(夏日聯句)」를 의식한 표현이다. 문종이 “사람들은 모두
무더위를 괴로워하지만 / 나는 여름날이 긴 것을 사랑하네[人皆苦炎熱,
我愛夏日長]”라고 읊자, 유공권이 “훈풍이 남쪽에서 불어오니 / 전각 모퉁
이에 시원한 미풍이 일어나네[薰風自南來, 殿閣生微涼]”라 답했다. 소식
이 여기에 “한 번 거처를 옮기면 / 고통과 즐거움을 길이 잊으니 / 원컨대
이를 고르게 베풀어 주고자 하여 / 시원한 그늘을 사방에 나눠 주려다고
말했으면.[一爲居所移, 苦樂永相忘. 願言均此施, 清陰分四方]”이라는 두
연을 덧붙여 문종과 유공권이 백성들의 고통을 보지 못함을 짚었다.

33 “積雨初霽; 衆川爭赴. 山蒸烝而霧生; 水溶溶而波闊. 於是, 蘭臺詠賦, 快哉
楚襄之風; 殿角生涼, 愛此唐文之日”

9문단 창으로 어부의 피리 소리 들려오고, 바람이 누런 먼
지를 쓸어내니,
드높은 하늘은 더욱 멀고, 교묘한 달빛은 더욱 빛나
네.

이에,
장한(張翰)이 오주(吳州)로 돌아간 것을 따라 생선회
와 순채국의 맛에 배부르고³⁴, 동파(東坡)가 적벽(赤
壁)에 노닐 일을 좇아 「명월」과 「요조」시편³⁵을 읊조
리네.³⁶

11문단 우주는 아득하고, 산천은 삭막하여,
먼 포구에는 오가는 배 끊어지고, 겹친 산봉우리
는 앙상한 뼈가 드러나네.

이때,
달빛 받으며 벼를 찾아감은 왕자유(王子猷, 왕휘지王徽
之)의 흥이 산음(山陰)에서 다하지 않아서요³⁷, 시든
매화나무에 다시 꽃이 피니 임(林) 처사³⁸의 풍골이
호숫가에서 말라버리지 않았음이라.³⁹

일관되게, 풍광을 묘사하는 짧은 연 두 개 이후 삼입구
‘이에’[於是]를 넣어 유람자의 행동과 심회로 서술 대상을
전환했다. 계절별 유람하는 이의 행동은 계절과 관련된 시

34 장한(張翰)이…배부르고: 서진(西晉)의 장한(張翰)은 동조연(東曹掾)이
란 벼슬을 하다가 가을바람이 이는 것을 보고 자기 고향 오주(吳州)의 진
미인 순채국과 농어회가 그리워져서 벼슬을 그만두고 귀향했다. 이 일이
『진서(晉書)』 「장한열전(張翰列傳)」에 보인다.

35 동파(東坡)가…「요조」시편: 소동파(蘇東坡), 곧 소식(蘇軾)의 「전적벽부
(前赤壁賦)」에 “「명월」시를 외고 / 「요조」장을 노래한다.[誦明月之詩 歌
窈窕之章]”라고 한 것을 본받는다 뜻이다.

36 “窓來漁笛; 風掃黃埃. 天悠悠而益遠; 月皎皎而增輝. 於是, 踵張翰 吳州,
飽玉鱸銀蕩之味; 追蘇仙 赤壁, 歌「明月」·「窈窕」之詩”

37 달빛…않아서요: ‘왕자유’(王子猷)는 자(字)가 자유(子猷)였던 진(晉)나
라 왕휘지(王徽之)를 가리킨다. 왕휘지가 산음(山陰)에 머무는 때 내리
는 밤에 흥이 일어 밤새 눈을 맞으며 배를 타고 친구인 대규(戴逵)를 섬계
(剡溪)로 찾아가다가, 대규의 집 앞에서 눈이 그치고 해가 뜨자 흥이 식었
다며 그대로 배를 돌린 일이 유명하다. 이 일이 『진서(晉書)』 「왕휘지열전
(王徽之列傳)」에 보인다.

38 임(林) 처사: 송(宋)나라의 임포(林逋)를 가리킨다.

39 “宇宙微茫; 山川索漠. 征帆絕於遠浦; 瘦骨生於疊嶂. 於是, 帶月尋友, 王子
猷興不盡於山陰; 殘梅返魂, 林處士骨未槁於湖上”

문이나 고사에서 유래하나, 계절감을 표현하는 역할에만 머무르지 않고 해당 상황별 유자(儒子)로서의 마음자세를 보여준다.

‘봄’의 경우, 『논어(論語)』 속 비파를 타던 증점(曾點)이 ‘봄옷이 다 지어지면 기수(沂水)에서 목욕하고 무우(舞雩)에서 바람쐬고 오겠다’고 답한 것처럼 유람하고자 경포대에 오른다. 여기서 화자는 범중엄(范仲淹)이 「악양루기(岳陽樓記)」에서 말한 성인의 태도를 되새긴다. 범중엄의 「악양루기」는 봄이라는 계절과는 무관하다. 경포대에 수많은 유람객들이 방문하는 계절에 그들의 올바른 자세가 무엇일지를 「악양루기」를 가져와 강조한 것이다. 증점과 범중엄이 나란히 놓이면서 유람은 오락이 아니라 유람자의 마음에 고상한 뜻을 불러일으키는 행위가 되었다. 또한, 『논어』 속 증점이 ‘아직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은’ 인물이고 「악양루기」 역시 좌천된 상대에게 위로와 격려를 건네는 상황이기에, 유람자는 관직에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포부를 품고 마음가짐을 다잡는다.

‘여름’에, 경포대 누정에서 부를 읊고 시원한 바람을 쐬는 화자는 자신이 시원한 바람을 누리는 이 유람이 특권적인 것임을 의식한다. 이에, 역사상 유사한 상황에서 서로 대조되는 태도를 보인 두 신하를 떠올린다. 두 이야기 모두에서 임금들은 백성들의 고통스런 여름나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초(楚) 양왕(襄王)은 자신이 시원한 바람을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누린다고 착각하며, 당(唐) 문종(文宗)은 남들은 여름날이 괴롭다지만 자신은 여름날이 긴 것이 좋이라며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시구를 짓는다. 두 이야기 속 임금들의 무신경한 태도는 유사하나, 곁에서 임금을 모시고 있다가 시문을 남긴 각 이야기 속 신하의 반응과 태도는 서로 대조된다. 송옥(宋玉)은 「풍부(風賦)」를 지어 임금과 백성들의 처소 형편이 다르니 시원한 바람은 대왕만이 누리는 것이라며 초 양왕의 착각을 은근히 풍간하고 백성들의 고통을 주달했지만, 유공권(柳公權)은 문종의 홀륭한 치세에 시원한 바람이 일어난다며 칭송하는 시구로

문종의 시구를 이었다.⁴⁰ 유사하면서도 대조적인 두 고사를 들어 임금을 배종하는 문신이 해야 할 역할을 상상하여 제시했다.

‘가을’의 진(晉)나라 장한(張翰)의 고사는 물론 가을의 정취를 표현하지만, 계절감 표현에 그치지 않고 유람자의 신분 변화를 보여준다. ‘봄’에서 장차 출사하여 봉사할 뜻을 품었던 유람자가 ‘여름’에서 군왕 곁에 머물며 풍간하다가, ‘가을’이 되자 관직을 그만두고 귀향하는 흐름을 보여준다. 송(宋) 소식(蘇軾)의 「전적벽부(前赤壁賦)」는 널리 알려졌듯 유한한 인간의 삶에 대한 애상을 영원할 자연에 대한 찬미로 극복하는 작품인데, 여기서는 유람객에게 가을을 맞아 고향으로 돌아온 유람자에게 산수를 즐기며 시편을 읊는 은거 자세를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겨울’에 이르면 유람자의 생활은 완전히 은자의 정취를 갖춘다. 매서운 바람에 온 세상이 죽은 듯 삭막한 겨울 풍경을 묘사한 뒤, 이런 때에 유람자는 달빛을 받으며 배 띄워 벗을 찾아가고 호숫가의 매화에는 새로 꽃이 핀다고 서술했다. 작자는 진(晉)나라 왕희지(王徽之)와 송(宋)나라 임포(林逋)의 고사를 살짝 비틀어 가져온다. 원래 고사에서는 홍이 다했다며 친구의 집 앞에서 배를 돌렸던 왕희지가 홍이 다하지 않아 벗과 함께하고, 매화를 아내 삼고 학을 자식 삼았기에 후사가 끊어진 임포의 풍골도 다시 꽃피는 매화나무를 통해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고 표현했다. 이를 통해 두 은자(隱者)의 고상한 정취를 경포대에서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고 서술했다.

이상 살펴본 「경포대부」의 전반부는 네 계절의 풍광과 그에 걸맞은 유람자의 행동과 이로 인해 촉발된 심회를 묘사했다. 계절에 따라 유람자의 신분과 처지가 유생-배종신(陪從臣)-사직하고 귀향하는 이-은자로 변화하며, 이에 따라 심경도 경세에의 포부 표현에서 충심으로 충언할 것을 다짐하는 것으로, 다시 고향의 산천으로 돌아감을 거쳐

40 이러한 유공권의 태도에 대해 송(宋) 소식(蘇軾)이 풍간한 시구에 대해서는 앞의 각주를 참조.

은자의 아취를 즐기므로 변화함은 주목을 요한다. 「경포대부」는 네 계절에 걸쳐 계절에 맞게 경포대를 유람하는 모습과, 각 상황마다 유자로서 기대되는 정서 반응을 묘사했다. 이렇게 유람과 유람의 성리학적 효과에 대해 네 계절에 걸쳐 서술하는 전반부의 논의는 이 작품의 후반부에 산수에 노니는 것의 타당함을 설파하는 논의와 연결된다.

「경포대부」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12~24문단에서는 ‘객’과 그에게 충고하는 ‘결의 어떤 이’가 등장한다. 먼저, 12~14문단에서는 변화한 곳을 싫어하고 산천을 즐기는 성정인 객이 경포대와 인근을 유람하고 느끼는 상쾌함을 묘사했다. 12문단⁴¹에서 ‘객’이 변화가를 싫어하고 산천을 좋아하여 명승지를 두루 유람했음을 서술하고, 그 결과 성취된 객의 정신적 수준을 묘사한 것이 아래 13문단이다.

13문단 이에, 안목은 천하에 높고, 정신은 우주에 노닐도다.

속된 마음은 물가 난간에서 깨끗이 하고,

세상 정은 바람 불어오는 자리에서 흘네.

금계(金鷄)가 새벽을 울어 알릴 때면 부상(扶桑)의 만

이랑 붉은 물결을 움키고, 옥토끼가 어둠 속에 솟아

오르면 용궁 속 천 층 흰 탑을 굽어보네.⁴²

여기서 포착되는 유람의 효과는 속된 마음을 털어내고 호연지기를 키우는 것이다. 화자는 ‘객’이 산천에서 유람하여 높은 안목과 호방한 정신을 갖추어서 속된 마음을 털어냈다고 서술한다. 그 결과로 광활해진 객의 인식 지평을 우주적 공간을 움키고 굽어보는 행동을 묘사함으로써 보여준다. 곧, 우주의 새벽을 깨우는 금계(金鷄)가 울 때 아침 해의 물결을 움키고, 용궁의 천층탑으로 표현된 바닷속을 비추는 달빛을 굽어볼 정도로 ‘객’의 인식 지평은 멀고도

깊다고 묘사했다.

17, 18문단은 객의 ‘결에 있던 어떤 이’가 객의 의견에 반대하여 건네는 충고다. 옛 선인들이 지금은 없는 것이 덧없어 회한이 느껴진다면 덕을 쌓아 후대에 길이 전해질 공업을 이루도록 노력해야지, 눈앞의 즐거움에 빠져 산수를 유람해서는 안된다고 충고한다.⁴³

이에 대한 객의 반박이 19~24문단에 드러나는데, 요약하자면 공업을 세워 명예를 얻는 일은 명예 따른 것으로 추구한다고 억지로 될 것이 아니니 처한 상황에 좌우되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 산수에 유람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쓰임을 받게 된다면 마땅히 사직을 위해 일할 것이라며 자신의 출처관을 표현한다.

나그네는 웃으면서 답하였다.

19문단 나아가 도를 행하고 물리나 숨는 것은 운수에 달려

있고, 화복은 시기가 있는 법

구해도 얻을 수 없고, 버려도 버릴 수 없는 것이라오.

그만둘지니 끝내 인력으로 취할 수 없는 것을, 명이

니 조화의 하는 대로 따라야 할 뿐이라.⁴⁴

그러므로

21문단 마음을 텅 비워 사물에 응하면, 만나는 일마다 합당

함을 얻을 것이요.

정신이 이지러지지 않아 내심이 지켜지면, 뜻이 어

찌 흔들려 밖으로 달리겠는가.

영달해도 기뻐 말고 곤궁해도 슬퍼 말아야 나아가고

물리나는 도리를 온전히 할 것이며, 우리러보아도

41 “어떤 객이 있어 / 강산에 성벽이 있고, 조정과 저자가 마음에 맞지않아 / 빈 누각에서 오만한 웃음을 보내고, 이끼 낀 물가에서 맑은 여울을 완성했네. [有客, 江山性癖; 朝市心違. 寄笑傲於虛閣; 翫清漪於苔磯.]”

42 “茲以, 眼高九州; 神遊六合. 塵心靜於水軒; 世情散於風榻. 金鷄唱曉, 挹扶桑萬頃之紅波; 玉兔昇昏, 頻龍宮千層之白塔”

43 “임금과 백성에게 충성과 은혜를 바치고, 역사에 덕업을 드리운다면, 용을 더위잡고 봉에게 부쳐 사후(死後)의 명예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니, 뜻을 게을리하고 자신을 잊어 가며 눈앞의 즐거움을 따르지는 마시오. [效忠惠於君民; 垂德業於竹帛. 攀龍附鳳, 可成身後之名; 情志忘形, 莫循眼前之樂.]”

44 “客笑而答曰, ‘行藏由運; 禍福有期. 求之而不可得; 捨之而不能遺. 已乎終非人力之可取; 命也當聽造化之所爲’”

부끄럽지 않고 굽어보아도 부끄럽지 않아야 하늘과 사람의 꾸지람을 면할 수 있소.⁴⁵

또한

22문단 억제하기 어려운 것은 정이고, 넘치기 쉬운 것은 기이니,

만일 조양(操養)하는 기를 잃는다면, 반드시 제멋대로 흘러가 뜻을 잃을 것이오,

명예를 구하고 이익을 구하는 것은 정녕코 성정에 해로운 일이요, 물을 좋아하고 산을 좋아하는 것은 인자(仁者)와 지자(智者)를 사모하는 뜻이라오.⁴⁶

그러나

23문단 선비는 세상에 태어나면, 자신을 사사로이 하지 않으니,

혹시 풍운제회(風雲際會)를 만난다면, 마땅히 사직을 위하는 신하가 되리,

용중(隆中)의 와룡⁴⁷이 명성을 구한 선비는 아니었지만, 위천(渭川)의 어부⁴⁸가 어찌 세상을 잊어버린 사람이었겠는가.⁴⁹

앞서 살핀 작품의 전반부와 달리, 논술이 전개되는 위 인용 부분은 매 문단이 논리 연결을 돕는 삽입구로 시작했다. 전반부는 묘사의 생생함과 아름다움을 추구했기에 논리적인 연결을 돕는 삽입구를 상대적으로 덜 사용했다. 이와 달리, 객의 입을 빌려 작자가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위 인용 부분에서는 논리정연한 전개가 필요하여 동원된 장치다.

19문단에서는 공명을 위해 힘쓰란 ‘결의 어떤 이’의 충고에 대해, 후세에 공명을 드리우는 일이 개인의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님을 지적하고, 21문단에서는 따라서 개인의 의욕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 온당하게 행동하고 마음을 지켜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파한다. 이러한 출처관은 전체 맥락과 접속하여 경포대에서 유람하는 일의 정당함으로 연결되는데, 22문단에서 마음을 다스리려면 물과 산에서 수양해야 한다고 하여 경포대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것이 단순히 행락하려는 것이 아니라 유자로서 성정을 함양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3문단에서는 다시 전환하여, 사대부로서의 도리를 잊은 것이 아니라 때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해명 및 부연했다. 이를 위해 큰 공업을 남긴 제갈량(諸葛亮)과 여상(呂尙)이 등용 전 은거한 것이 사대부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포기한 행위가 아니었음을 예로 들었다.

이제까지 살펴본 바, 「경포대부」는 크게 전지적 3인칭으로 경포대의 풍광과 사계, 그리고 사계 속 유람자의 행동과 심회를 묘사하는 전반부와, ‘객’과 ‘결의 어떤 이’의 문답이 직접 인용 형식으로 전개되는 후반부로 나뉜다. 이 글의 전, 후반부는 주제 및 구조상 내적 통일성을 유지한다. ‘경포대를 유람하는 것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설파한다는 주제가 일관되게 제시되며, 전반부에서 경포대의 뛰어난 풍광과 이를 통해 일어나는 모범적인 흥취를 묘사하여 독자에게 경포대 유람의 타당함을 제시하고, 후반부에서 이를 인물 간의 대화를 삽입하여 직접 설파하는 구조다. 곧, 유람할만한 아름다운 승경을 제시하고, 이곳에 유람하는 일이 유자다운 일임을 서술하여 경포대와 이곳에 유람하는 일의 가치를 아름답게 제시한 글이다.

45 “是故, 虛心應物; 觸事得宜. 神不虧而內守; 志豈動而外馳. 達莫喜窮莫悲, 庶全出處之道; 仰不愧俯不作, 可免天人之譏”

46 “且夫, 難制者情; 易濫者氣. 苟操養之失機; 必流佚而喪志. 求名求利, 定有害於性情; 樂水樂山, 竊多慕於仁智”

47 용중(隆中)의 와룡: 삼국시대 촉한(蜀漢)의 제갈량(諸葛亮)이 등용되기 전 은거하던 곳이 용중(隆中)이다.

48 위천(渭川)의 어부: 주(周)나라의 여상(呂尙)을 가리킨다. ‘강태공’(姜太公)으로 널리 알려진 여상은 위천(渭川), 곧 위수(渭水)의 반계(磻溪)에서 낚시질하다가 문왕(文王)을 만나 등용되었다.

49 “雖然, 士生於世; 不私其身. 倘遇風雲之會; 當成社稷之臣. 隆中臥龍, 縱非求聞之士; 渭川漁父, 豈是忘世之人”

4. 「경포대부」속 경포대 지역 이미지와 그 특성

앞서 살펴본 바, 「경포대부」는 경포대를 유람하는 것이 상기시키는 유자다운 마음가짐을 묘사하고, 경포대를 유람하는 일이 유자다운 출처관과 부합함을 설파했다. 달리 말해, 「경포대부」속 경포대는 유자가 성정을 함양하는 공간이다. 여기서는 「경포대부」에 드러난 경포대의 지역 이미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경포대를 보는 「경포대부」작자의 태도는 경포대의 지난 이야기를 회고할 때도 드러난다.

이미 한 바퀴 유람을 마치고 나서, 한숨을 내쉬며 다
음과 같이 말했다.⁵⁰

15문단 “옛 현인들 떠나 버리니, 지난 일들 까마득하구나.

죽계(竹溪)⁵¹의 웅건한 필치를 열람하고, 석간(石澗)⁵²
의 맑은 시를 읊네.

화재 당한 뒤에 중건한 것이라 애석하게도 전일의
화려한 모습을 잃었으니,

물 위의 목란주(木蘭舟)에 누라서 옛적의 홍장(紅粧)
을 실어 오리오!”⁵³

언급되고 있는 인물은 안축(安軸, 1287~1348), 조운홀(趙云休, 1332~1404)과 기생 홍장(紅粧)이다. 안축은 경포대 누정에 관해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기록인 「경포 신정기(鏡浦新亭記)」를 남긴 인물이고 조운홀은 강릉부사 재직 당시 벗인 박신(朴信, 1362~1444)을 초청하여 홍장을 신선으로 꾸며 장난을 친 이야기가 풍류 있는 이야기로 조선시대에 내내 회고된 인물이다. 기생인 홍장은 실상 조운홀의

이야기의 조연이므로, 해당 문단에서 홍장을 든 것은 조운홀의 자취가 멀어졌음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곧, 「경포대부」의 작자가 경포대의 역사 내지 경포대에 축적된 이야기로 기억하는 것은 안축과 조운홀의 고사로 대표되는, 이곳에서 노닐었던 선유(先儒)들의 시문과 행적이다. 이는 객에게 충고를 건네는 ‘결의 어떤 이’의 발언에서도 일관된다.

결에 있던 이가 말했다.

17문단 “이런 땅이 있었기에, 이러한 대를 쌓았겠지요.

영웅들의 남긴 감상이 상상되고, 은자들의 배회하던
모습이 그리워집니다.

경포대에 올라 마음껏 노닐 것이 비록 한때의 즐거
운 일이긴 하나, 아득히 자취가 없이 천년의 세월 겪
고는 재가 되어 버렸소.”⁵⁴

‘결에 있던 이’는 경포대를 ‘영웅들이 감상을 남기고 은
일들이 배회하던 곳’으로 인식하여, 안축과 조운홀로 경
포대의 역사를 인식하는 ‘객’과 서로 유사한 인식을 보여
준다. 객과 그 결의 인물이 상상하는 경포대의 옛 모습은
선유들의 발자취로 구성된다.

그런데, 「경포대부」가 언급한 위 두 편의 시문은 모두
유자에 의해 지어진 것이지만, ‘신선이 노니는 땅’이란 경
포대의 이미지를 중심에 둔 작품들이다. 따라서, 이들이
인식하는 경포대의 역사는 신라시대에 영랑(永郎)등의 선
랑(仙郎), 곧 신선들이 노닐었다는 것에서 시작한다. 김풍
기의 선행 연구에서 이미 정치하게 분석한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논의를 위해 간략하게만 살핀다.

앞서 살펴보듯, 「경포대부」에서 경포대의 역사를 보여주
는 문학 작품으로 먼저 언급된 것은 고려시대 안축의 「경
포 신정기」로, 현재까지도 전해지는 ‘경포대에서 신라 영

⁵⁰ 이 문장은 변려문의 대우 및 율격 규칙에 구애받지 않고 문단 전환 혹은 소개의 역할을 하는 산구 내지 삽입구에 해당한다.

⁵¹ 죽계(竹溪): 안축(安軸, 1287~1348)의 호(號).

⁵² 석간(石澗): 조운홀(趙云休, 1332~1404)의 호.

⁵³ “遊覽既周, 喟然歎曰, “前賢已矣, 往事亡羊. 覽竹溪之雄筆, 吟石澗之清章, 火後經營, 恨失前日之華構; 水中蘭桂, 誰載昔時之紅粧””

⁵⁴ “傍有一人曰, “既有此地, 便築斯臺, 想英雄之遺賞, 懷隱逸之襄徊. 登臨放情, 縱一時之樂事; 杳茫無迹, 歷千古而成灰.””

랑이 노닐었다’는 이야기를 누정 건축의 합당함과 엮어 서술한 글이다. 안축은 건축주이자 기문을 부탁한 인물인 박숙정(朴淑貞)의 목소리를 인용하여 경포대와 누정 건립 사유를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태정(泰定) 병인년(충숙왕 13년, 1326)에 지금의 지추부학사(知秋部學士) 박숙(朴淑) 공이 관동의 임기를 마치고 돌아와 나에게 말했다. “임영(臨瀛, 지금의 강릉江陵)의 경포대는 신라 때 영랑 선인(永郎仙人)이 놀았던 곳이오. 내가 이 대(臺)에 올라 산수의 아름다움을 보고는 마음이 참으로 즐거워서 지금까지도 아른거려 잊어 본 적이 없소. 경포대는 예전부터 정자가 없어서 비바람이 칠 때면 유람하는 자들이 괴로워하였소. 그러므로 고을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 위에다 작은 정자를 지었소. 그대는 나를 위해 기문을 지어 주시오.”⁵⁵

경포대는 ‘신선 영랑이 놀던 곳’으로 규정되었다. 위 안축의 기문은 이러한 이해에서 출발하여, 신선이 사랑하여 노닐고 후대에 박숙정이 감동하여 누정을 지을만한 경포대의 풍광과 그 미감을 서술하며 진행된다. 곧, ‘영랑이 노닌 명승지 경포대’라는 이미지가 이 글의 핵심이자 토대이기에, 영랑이 노닐었다는 사실은 경포대의 아름다움을 보여줄뿐더러 건축의 타당성을 보여주는 역사적 근거로 기능한다.

「경포대부」가 언급한 다른 하나의 작품인 ‘조운홀의 시’와 배경이 되는 이야기는 서거정(徐居正, 1420~1488)의 『동인시화(東人詩話)』에 실려있다. 서거정의 이야기를 간추리면, 조운홀이 당시 강릉 부사로서 관찰사 박신이 아끼던 강릉 기생 홍장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한 뒤, 경포호에 배를 띄워 홍장을 신선처럼 꾸며 태우고 신선이 풍류객을

그리워하여 배를 타고 온 것처럼 박신을 속였다. 이에 박신이 한바탕 눈물을 쏟다가, 배에 탄 것이 홍장을 닮은 신선이라 아니라 정말 홍장임을 알게 되자 모두 크게 웃고 맘껏 즐겼다는 이야기이다. 서거정의 서술 이후 이 이야기는 조선 후기까지도 계속 전해졌으며, 여러 지리지나 후대의 작품에서도 경포대를 구성하는 이야기로 으레 소개되었다.

해당 이야기 속의 조운홀은 홍장이 탄 배를 신선의 배라고 속이고자 경포대가 신선의 자취가 남은 곳임을 강조했다. 조운홀이 써 붙인 시와 이를 본 박신에게 조운홀이 한 말을 『동인시화』에서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또 채색한 현판에 시를 적어 걸었는데, “신라 성대의 늙은이 안상(安詳)이 / 천년의 풍류를 아직 못 잊어 / 사신이 경포에 노닐단 말 듣고서 / 참지 못하고 목관주에 홍장을 태워 왔노라. [新羅聖代老安詳, 千載風流尙未忘. 聞說使華遊鏡浦, 蘭舟不忍載紅粧.]” 라고 했다. 느릿느릿 노를 저어 포구로 들어와 모래톱 사이를 오락가락하는데 거문고 소리와 피리 소리는 공중에서 들리듯이 맑고도 고왔다. 부윤(府尹)이 안렴사(按廉使)에게 말하길, “이곳에는 옛 신선의 발자취가 남아 있습니다. 산 정상에는 차 아궁이가 있고, 여기서 몇 리 거리에 한송정(寒松亭)이 있는데 그 정자에도 사선비(四仙碑)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신선 무리가 그 사이를 오가기에, 꽃 피는 아침이나 달이 뜬 밤이면 사람들이 간혹 보곤 합니다. 다만 멀리서 볼 수는 있지만 가까이 가지는 못합니다.” 라고 하였다.⁵⁶

위 조운홀의 시 속 화자인 안상(安詳)은 신라 사람으로

55 “越泰定丙寅, 今知秋部學士朴公淑自關東杖節而還, 謂余曰, “臨瀛 鏡浦臺, 羅代 永郎仙人所遊也. 余登是臺, 觀山水之美, 心誠樂之, 到今惓惓, 未嘗忘也. 臺舊無亭宇, 有風雨則遊者病焉. 故命邑人構小亭于其上, 子爲我記之.” (안축(安軸), 『근재집(謹齋集)』 권1, 「경포 신정기(鏡浦新亭記)」. 원문은 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총간』 2집, 번역은 서정화·안득용·안세현의 것(한국고전번역원, 『근재집』, 2013)을 인용했다.)

56 “又揭彩額題詩其上曰, “新羅聖代老安詳, 千載風流尙未忘. 聞說使華遊鏡浦, 蘭舟不忍載紅粧.” 徐徐擊楫入浦口, 徘徊洲渚間, 絲管清圓如在空中. 尹語廉使曰, “此地有古仙遺跡, 山頂有茶竈, 距此數十里有寒松亭, 亭亦有四仙碑. 至今仙曹神侶往來其間. 花朝月夕人或見之, 但可望不可近也.” (서거정(徐居正), 『동인시화(東人詩話)』 하(下). 원문은 장서각 K4-6762, 번역은 이익성의 것(『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5, 「강릉대도호부(江陵大都護府)」, 한국고전번역원, 1970)을 참조하여 필자가 약간 수정하였다.)

신선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인물이다. ‘신라시대
에 신선들이 노닐던 곳’이라는 경포대의 이미지를 이용하
여, 지금 이 자리에 신선이 나타난 것처럼 연출했다. 조운
홀은 여기에 더하여 신선의 자취로 믿어지는 유적들을 열
거한 뒤, 신선이 오가는 것을 사람들이 더러 목격한다는
이야기를 덧붙여 경포대를 옛적부터 지금까지 신선이 출
몰하는 신비한 공간으로 설명한다.

앞서 살핀 「경포대부」의 구절 중 ‘석간의 맑은 시’를 읊
은 화자가 “물 위의 목란주(木蘭舟)에 뉘라서 옛적의 홍장
을 실어오리오! [水中蘭桂, 誰載昔時之紅粧]”라고 탄식
한 것은, 위 조운홀의 시의 네 번째 구를 의식하여 조운홀
의 발자취가 화자의 시대로부터 멀을 탄식한 표현임을 위
인용문을 통해 알 수 있다. 「경포대부」는 조운홀의 고사와
시문을 경포대의 역사이자 문화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전
고로 활용했다. 하지만 「경포대부」는 조운홀의 작품 속 경
포대 역사 인식은 승계하지 않았다. 「경포대부」에서 조운
홀의 일화와 시 작품은 신선의 발자취가 아니라, 조운홀과
박신이라는 옛 현인들의 발자취로서 의미를 가진다.⁵⁷ 따
라서, 해당 작품이 구성하는 경포대의 이미지 역시 신선이
아닌, ‘선유들이 노니시던 곳’이다.

이는 조선시대 인물들의 시문에서 지속적으로 경포대
의 옛 이야기를 ‘신선 영랑이 노닐던 곳’으로 제시하는 것
과는 무척 다르다. 아래 장유(張維, 1587~1638)의 「경포대
기(鏡浦臺記)」 일부와, 홍양호(洪良浩, 1724~1802)의 「경포
대 상량문(鏡浦臺上樑文)」 일부를 순서대로 인용한다.

① 도지(圖志)를 상고해 보건대, 경포는 바로 영랑선인(永
郎仙人)이 옛날에 노닐었던 곳으로서 누대(樓臺)를 세운 것은
실로 고려조(高麗朝)의 안렴사(按廉使) 박공숙(朴公淑)이 착수
했던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그가 바야흐로 공사를 시작하
려 하면서 제사를 지내려고 땅을 청소하다가 옛날의 주춧돌

을 발견하였는데, 이 돌이 어느 시대의 것인지 확인할 수가 없
었고 보면 대체로 오래 전부터 이곳에 누대가 있었던 것을 짐
작할 수가 있다. 그 뒤로 또 조석간(趙石澗, 조운홀(趙云弘))과 박
혜숙(朴惠肅, 박신(朴信)) 같은 풍류객이 멋있게 글로 장식하면
서 더욱 사람들의 탄상(歎賞)하는 대상이 되었었다.⁵⁸

② 삼가 현묘한 이치가 만물에 입김을 불어 큰 바다에 신
령한 기운을 축적하더니, 동방 청제(靑帝)가 권세를 관장하여
동쪽 바닷가에 깊숙한 지역을 열었네. 이곳에 조화옹이 자취
를 남긴 것인가? 아니면 신선이 거처하던 곳인가? 오직 이 경
포(鏡浦)의 누대가, 실로 봉래산(蓬萊山)의 승경을 독차지하네.
(...) 신라의 공자가 멀리 달아나 숨은 곳이니 높은 풍도를 따
라가기 어렵고, 영랑(永郎)과 술랑(述郎) 두 신선이 노닐던 곳
이니 남긴 자취를 가리킬 수 있네.⁵⁹

위 두 편의 글은 모두 ‘영랑이 노닐던 곳’으로 경포대
를 지칭하면서 비밀상의 공간으로 조명했다. ①의 「경포
대기」는 경포대의 역사로 「경포대부」와 같이 안축과 조운
홀, 박신을 소환하지만, 「경포대부」와는 다르게 안축 등이
인식하고 있던 영랑을 첫 번째로 내세운다. 이에, 경포대
는 신선이 노닐던 ‘명승지’로 조명된다. ②의 「경포대 상량
문」 역시 신라의 신선이 노닐던 곳으로 경포대를 인식하
고 있는데, 이 상량문에서 특히 경포대의 생성 당시에 대
해 서술한 단락은 경포대에 신이한 이미지를 부여한다. 이
렇게 경포대를 ‘만물에 입김을 불어 신령한 기운을 축적’
하고 ‘동방 청제가 권세를 관장’하고 조화옹이 자취를 남
겼다는 서술은 「경포대부」에서 자연의 자연스러운 이치

58 “按圖志, 浦即永郎仙人舊遊地. 而臺之建, 實昞於麗朝按廉朴公淑. 方其經
始也, 除地而得故礎, 不知是何代物, 則其爲臺也蓋久矣. 自是而又得趙石
澗, 朴惠肅之風流以藻飾之, 益爲人所賞艷.” (장유(張維), 『계곡집(谿谷
集)』 권8, 「경포대기(鏡浦臺記)」. 원문은 한국고전번역원, 번역은 이상현
의 것(『계곡집』 1, 한국고전번역원, 1994)을 인용했다.

59 “粵以玄竅噓物, 積靈氣於大瀛; 靑帝司權, 闢奧區於東汜. 於焉造化之留
跡; 或爲仙眞之攸棲. 惟茲鏡浦之臺; 實擅蓬島之勝. (...) 新羅公子之遐跡,
高風難攀; 永·述二郎之眞遊, 遺蹟可指.” (홍양호(洪良浩), 『이계집(耳溪
集)』 권22, 「경포대 상량문(鏡浦臺上樑文)」. 원문은 한국고전번역원, 번
역은 이상아의 것(『이계집』 7,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21)을 인용
하였다.)

57 앞서 살핀 「경포대부」의 구절 중, “옛 현인들 떠나 버리니, 지난 일들 까마
득하구나. [前賢已矣. 往事亡羊]”가 참고된다.

로 경포대가 만들어졌다고 서술한 것과는 대조된다.

선행 연구에서 추적해 보였듯, 경포대를 비일상의 명승지이자 신선의 자취가 남은 공간으로 인식하는 것은 위의 두 사례뿐 아니라 보편적으로 보이는 현상이다. 이러한 장소 인식은 작품 내 시적 자아의 자기 인식에서도 드러난다. 비일상적인, 선인이 오가는 장소인 경포대에서 시를 읊는 화자 자신을 신선의 흔적을 탐방하는 후인으로 인식하거나, 나아가 신선 혹은 그 후예로 여기기도 한다. 이 중에서도 이이에게 수학한 바 있는 최전(崔澱, 1567~1588)의 아래 「경포에 붙여[題鏡浦]」 첫 수는 일상 공간에서 완전히 분리된 공간으로 경포대를 형상화한다.

봉호에 한번 들면 삼천 년이 훌쩍인데	蓬壺一入三千年
은빛 바다 아득하고 물은 맑고 알아라	銀海茫茫水清淺
난새 타고 오늘 홀로 날아왔건만	驂鸞今日獨飛來
벽도화꽃 아래 아무도 아니 보이네	碧桃花下無人見 ⁶⁰

위 최전의 시에서 경포대는 신선이 옛적에 노닐던 곳이자, 그 신선이 삼천 년 만에 다시 돌아와 옛일을 회고하는 곳으로 이미지화되었다. 완전히 비일상의 신비한 공간이다. 이러한 공간 인식에 더하여, 해당 공간 속에서 시의 화자는 본인을 신선으로 표현하며, 옛적에 함께 노닐던 신선들이 보이지 않음을 회고조로 탄식한다. 위 시는 조선 시대에 경포대를 읊은 시 중 명작으로 회자되었으며,⁶¹ 복수의 차운시가 현전한다.⁶² 화자가 자신을 ‘돌아온 신선’

으로 인식하면서 성취한 시의 분위기와 미감을 높이 산 것인데, 해당 시가 널리 알려지며 경포대는 더욱 더 신선이 노닐 만한 신비한 명승지라는 이미지를 확고히 했을 것이다.

최전의 시와 앞서 살핀 조운흥의 시는 시적 화자가 자신을 돌아온 신선으로 묘사한다는 점에서 상통한다. 나아가, 두 시의 시적 화자의 자아상과 비할 때 「경포대부」의 화자는 개성적이다. 「경포대부」의 화자는 경포대에 올라 ‘마치 신선이 된 듯’하다며 유람의 상쾌한 기분을 표현하기는 하지만, 자기 자신을 신선 혹은 그 후인으로 여기지는 않는다. 「경포대부」의 화자 및 유람자는 계절별로 신분은 변화하더라도 시종 유자로서 경포대의 풍광에 반응하며, 경포대에서 노니는 것도 성정을 함양하기 위해서다.

조선시대의 시(詩) 중에서 경포대에 붙여 신선 이야기 보다는 유자로서의 마음을 노래한 다른 사례가 없지는 않다.⁶³ 특히 김창흡(金昌翕, 1653~1722)의 「경포대에 들리[過鏡浦臺]」는 선가(仙家)와 불가(佛家)의 수련법을 모두 부러움을 만드는 것에 속한다며 자신은 ‘빈 배’와 같이 마음을 비우겠다고 했는데,⁶⁴ 풍광을 보고 자신이 나아갈 바를 생

『한수재집(寒水齋集)』 권1, 「경포대, 양포 최전의 시에 차운하다[鏡浦臺次崔楊浦澱韻]」 등이 있다.

⁶³ 서인(西人) 학맥 외부에서 예를 찾는다면 유배객으로서 멀리 있는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표현한 이산해(李山海, 1539~1609)가 “고운 모래 비칠락 말락 관로의 술은 멀고 / 봉래산은 아스라한데 바다 해는 차누나 / 하늘 저편에 임 생각 아득하기만 하여 / 시름에 겨운 몸으로 옥 난간에 기대었노라[鳴沙隱映官松迥, 蓬島微茫海日寒. 天末美人思渺渺, 不堪愁倚玉闌干].”라고 한 것이 한 예다(최산해, 『아계유고(鵝溪遺稿)』 권2, 「아들 녀석이 경포대에 노닐며 지은 시에 차운하다[次豚兒遊鏡浦臺韻]」). 원문은 한국고전번역원, 번역은 이상하의 것(『아계유고』 1, 「아들 녀석이 경포대(鏡浦臺)에 노닐며 지은 시에 차운하다」, 한국고전번역원, 1997)을 인용하였다. 또한, 이현일(李玄逸, 1627~1704)이 「경포대(鏡浦臺)에 올라[登鏡浦臺]」 2수 중 첫 수에서 “백년의 근심과 즐거움 자신 위한 것 아닌데 / 부끄럽게도 일엽편주를 무용지물로 만들었군[百年憂樂非身計, 慙愧扁舟作散材]”이라고 한 것에서 유자로서 은거하고자 하는 마음을, 둘째 수에서 “유람하는 몸 가는 곳마다 즐겨도 무방하나 / 나라의安危에 임금 근심은 누가 떠맡을꼬[浪跡不妨隨處樂, 安危誰任急君憂]”라고 한 데서 유국충정의 마음을 표현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이현일, 『갈암집(葛庵集)』 권1. 원문은 한국고전번역원, 번역은 이상하의 것(『갈암집』 1, 한국고전번역원, 1999)을 인용하였다).

⁶⁴ “신선은 단약 부뚜막은 남겨두고 비결만 거두어갔고 / 승려는 한송정에 기대어 법화경을 외우네 / 기를 단련하고 참선하는 것 모두 일에 속하니 /

⁶⁰ 최전(崔澱), 「경포에 붙여」[題鏡浦] 제1수, 『양포유고(楊浦遺藁)』. 원문은 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총간』 속 16. 번역은 정선용의 것(『우북집』 3, 「『양포시고(楊浦詩稿)』 발문」, 한국고전번역원, 2005)을 참조하여 필자가 약간 수정하였다.

⁶¹ “양포(楊浦) 최전(崔澱)의 경포대시에, “...”라고 하였는데, 사람들은 이것이 고금의 절창(絶唱)이며 뒷사람이 감히 이를 수 없는 것이라고 여긴다.[崔楊浦澱「鏡浦臺」詩, “...”, 人謂古今絶唱, 後人不敢續也.]”(이익(李瀾, 1681~1763), 『성호사설(星湖僞說)』 권30, 「경포대시(鏡浦臺詩)」. 원문은 한국고전번역원, 번역은 신호열의 것(『성호사설』 11, 한국고전번역원, 1976)을 참조하여 필자가 약간 수정하였다.)

⁶² 허봉(許篈, 1551~1588), 『하곡집(荷谷集)』 보유(補遺), 「경포대 최언침의 시에 차운하다[鏡浦臺次崔彦沈韻]」 및 권상하(權尙夏, 1641~1721),

각했다는 점에서는 「경포대부」와 접속된다고 하겠다. 다만 김창흡의 시는 짧은 편폭 내에서 경물과 이에 대한 감회를 압축적이고 선명하게 표현했기에, 경포대 풍광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이를 통해 촉발되는 유자적 감회를 서술하는 「경포대부」와는 다른 종류의 성취이다. 김창흡의 시는 경포대에 노닐며 자신이 해당 순간에 가졌던 생각을 표출한 작품이고, 「경포대부」는 경포대를 중심에 두고 그 사계절의 풍광과 내력, 그리고 그곳에서 찾을 수 있는 유가적인 가치를 서술하여 경포대에 ‘유자가 거처하며 정서를 함양하는 장소’라는 의미를 부여한 작품이다. 곧, 경포대가 ‘거주하는 장소인가 일시적 방문을 통해 감흥을 받는 명승지인가’하는 차이가 있다.

이제까지 경포대를 제재로 삼은 다른 작품들과 구별되는 「경포대부」의 경포대 인식을 살펴보았다. 「경포대부」의 경우 경포대에 얹힌 이야기, 곧 경포대를 구성하는 역사로서 안축과 조운흥을 소환하면서도 그들이 의식하고 있던 영랑의 이야기는 배제한다는 점에서 의도가 뚜렷이 드러난다. 작자는 경포대를 신선이 노닐던 곳이거나 비밀상적 명승지가 아니라 유자가 올바르게 마음을 함양하는 은거처로 묘사했다. 이는 일시적 유람 중에 명승지의 풍광을 보고 촉발된 유자로서, 혹은 신하로서의 마음을 표현한 다른 사례와도 구별되는 특징이다.

5. 결론

지금까지 작자에 대한 논란이 있는 전(傳) 이이 작 「경포대부」의 구성과 특징, 그리고 독특한 장소 인식을 살펴 보았다. 경포대는 고려시대 이후 명승지로 인식되었으며,

따라서 많은 시문에서 비밀상적인 ‘명승지’ 내지 ‘관광지’로 묘사되었다. 이는 경포대를 제재로 한 대부분의 시문에서, 경포대를 신선이 노닐 역사를 가진 곳으로 인식하고, ‘신선이 노닐만한 땅’으로 형상화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었다. 이와 다르게 「경포대부」는 경포대를 선비의 성정 함양 공간으로 형상화했다. 「경포대부」는 경포대를 ‘옛 현인들이 머물던 곳’으로 인식하였으며, 경포대의 사계가 유람자에게 불러일으키는 유자다운 감흥을 묘사하는 것으로 그 성리학적 장소성을 강조했다.

경포대를 ‘유자로서의 정서를 함양하는 장소’로 의미를 제시한 사례는 「경포대부」가 거의 유일하다. 작품에 나타나는 이러한 장소 인식이 조하망 등이 이 작품을 ‘10세 시절의 이이가 강릉의 외가택에서 머물던 시절에 지은 것’으로 확신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경포대부」는 현전하는 조선시대 한문학 작품들과 다르게, 경포대를 일시적으로 잠시 노닐는 명승지가 아니라 유자가 머물며 그 사계의 풍광을 낱낱이 즐기며 이를 통해 정서를 함양하는 장소로 인식한다. 해당 인식에서 연상되는 작가의 모습은 강릉에 머물며 유자적 자아를 표출하는 인물이다. 해당작이 이이의 외가 집안에서 이이의 작이라는 기록과 함께 발견되었으므로 이이의 후학들인 조하망 등에게는 이이의 작으로 신뢰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느껴졌을 것이다.

한편, 「경포대부」에 드러나는 ‘유자의 정서 함양처’로서의 경포대 이미지를 공유하는 작품은 현재 찾기 어렵다. 경포대의 풍광이 직접적으로 시적 화자의 유자로서의 정체성 표출과 직결되는 작품 역시 찾기 어려우며, 더욱이 「경포대부」가 발견된 영조 19년(1743) 이후의 작품들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경포대부」가 이이의 작품으로 발견 당시 받아들여져 『율곡전서』 습유 첫머리에 수록되었음에도, 이이가 가지는 사상사적, 정치사적 심대한 영향력에 비해 후대의 인물에게 해당 작품이 제시한 ‘유자의 수양처인 경포대’란 이미지는 승계되지 않았다. 요컨대, 「경포대부」는 경포대에서 유람하는 인물들을 유가

이 마음은 오직 빈 배를 짊어 하노라[仙留丹竈收眞訣, 僧倚寒松誦法華. 鍊氣參禪俱屬事, 此心惟欲伴虛槎]. (김창흡(金昌翕), 『삼연집(三淵集)』 권3, 「경포대에 들러[過鏡浦臺]」. 원문은 한국고전번역원 제공 『한국문집총간』 165~167(1996), 번역은 김동주의 것(『임하필기』 8, 「경포대(鏡浦臺), 대관령(大關嶺)」, 한국고전번역원, 2000)을 참조하여 필자가 약간 수정하였다).

적 가치에 충실한 인물들로 그려내는 데에 작품 내적으로 성공하나, 작품 외적으로는 경포대의 ‘신선도 노닐다 간 명승지’로서의 이미지를 바꾸는 데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謹齋集』 권1, (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총간』 2) / 『東人詩話』 下 (장서각 K4-6762) / 『西州集』 권7,8 (연세대 소장,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제공) / 『楊浦遺藁』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제공) / 『栗谷全書』 拾遺 권1 (연세대 소장,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제공) / 『林下筆記』 권37 (서울대 규장각 소장,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제공) / 『淸沙散錄』 책4 (규장각 古3428-490)

2. 단행본 및 논문

- 김태환, 「최전의 경포대 제영과 예술적 모방의 규범」, 『한국학』 41(4), 한국학중앙연구원, 2018.
- 김풍기, 「명승 구성의 방식과 유형화의 길: 경포대 소재 시문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104, 한국언어문학회, 2018.
- 박우훈, 「駢儷文과 韻·散文의關係」, 『중국산문연구집간』 2, 중국산문학회, 2012.
- 신항수, 「홍계희의 편찬 및 간행 활동과 도통 의식」, 『역사와 담론』 66, 호서사학회, 2013.
- 유정은, 「율곡의 「경포대부」에 숨겨진 신사임당의 사상 연구」, 『율곡학연구』 52, 율곡연구원, 2023.
- 이경동, 「조선후기 율곡 이이 문집 편찬의 추이와 의의」, 『유학연구』 52, 충남대 유학연구소, 2020.
- 이채문 편역, 이장우 교열, 정범진 감수, 『국역 어전시운』, 명문당, 2022
- 이한길, 「김극기의 「경포대」 한시 연구」, 『동방학』 14, 한서대 동양고전연구소, 2008.
- 진필상, 심경호 역, 『한문문체론』, 이회문화사, 2001.

Abstract**Placeness Depicted in *Gyeongpodae*,
*YulgokJeonseo***

Kim, Jiin | Yonsei University

Gyeongpodae(鏡浦臺) is a representative scenic spot in Gangneung, Gangwon Province, where a rich collection of narratives and literary works(詩文) has accumulated over a long period. The most prominent image emerging from these stories and writings is that of a 'land where immortals(神仙) once roamed.' From the Goryeo period through the late Joseon Dynasty, and even up to the present day, introductions to Gyeongpodae invariably mention the story of Youngrang or the Saseonrang (Four Hwarang).

Given this tradition, the *Gyeongpodae-bu*(「鏡浦臺賦」), attributed to Yulgok Yi I(栗谷 李珥, 1536~1584), represents an exceptional case. In the *Gyeongpodae-bu*, the speaker enjoys the scenery finds Neo-Confucian values in it. He depicts Gyeongpodae as a place imbued with the footsteps of past Confucian predecessors, wholly unconnected to the realm of immortals. In essence, Gyeongpodae is perceived as a site where a Confucian scholar practices the cultivation of Neo-Confucian sensibilities.

However, the image of 'Gyeongpodae as a site for the cultivation of a Confucian scholar' presented by this work was not subsequently inherited by later figures. This paper examines the *Gyeongpodae-bu*, which offers a unique local perception that stands apart from the established literary tradition concerning Gyeongpodae.

Keywords Gyeongpodae(鏡浦臺), *Gyeongpodae-bu*(「鏡浦臺賦」), Place, Placeness, Narrative/Story, Neo-Confucian Landscape Tour, Immortal(Xian 仙), Pae-bu(俳賦)
